

감독도 선수도 한일전 경험 적지만...넘어야 할 한일전

오늘 오후 동아시아컵 최종 3차전...반드시 승리해야 3연패

벤투 "한일전 의미 잘 알고 있다,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

지난 2017년 대회 이후 2년 만에 치르는 한일전. 2년 동안 수장도, 선원도 꽤 많이 달라졌다. 흠에서 치르는 올해 마지막 A매치인 만큼 경험 있는 선수들의 노련한 경기 운영이 필요한 때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8일 오후 7시30분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속직 일본과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최종 3차전을 치른다.

현재 일본과 한국은 나란히 2승으로 1, 2위를 기록 중이다. 다만 골득실에서 일본(+6)이 한국(+3)에 앞서 있어 이날 경기에서 한국은 반드시 승리해야 지난 2015년, 2017년 대회에 이어 3연패를 달성할 수 있다.

가장 최근 한일전은 2017년 대회 일본에서 치러졌다. 당시 한국

은 김신욱의 멀티골, 정우영과 염기훈의 골로 4-1로 역전승하며 적지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감독도, 선수도 바뀐 대표팀이지만 한일전에 대한 각오는 변함없다. 벤투 감독은 "한일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특히 대회 최종전으로 한일전까지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출사표를 밝힌 바 있다.

현재 대표팀엔 호재보단 약재가 많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라는 부담감 속에 공격수 김승대, 윙백 김문환을 대회 중 부상으로 잃은 가운데 문선민도 무릎에 통증을 호소해 출전이 불투명하다.

여기에 일본보다 하루 덜 쉬는 부담에 실 팀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대부분의 선수가 시즌을 마친 뒤 경기에서 나서면서 컨디션도 떨어

져 있다.

이럴 때일수록 주장 박주호를 비롯, 김보경, 김영권 등 A매치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또 지난 2017년 대회 한일전에서 선발로 나서 풀타임을 소화한 경험이 있는 조현우, 김진수, 주세종과 벤치에서 한일전 분위기를 익힌 권경원, 윤일록, 김민재, 이정협 등이 나설 때다.

주세종은 최근 브라질과의 A매치에서 맹활약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등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 2차전에서 나란히 벤투 감독의 선택을 받은 윤일록과 이정협이 활약도 기대된다. 두 선수는 나란히 1차전 홍콩전에서 교체 투입돼 몸을 달군 뒤 2차전에서 선발에 나섰다.



윤일록의 경우 지난 2017년 대회 이후 2년 만에 대표팀에 합류했고, 이정협은 본인 스스로 이번 대회를 '마지막 기회'라 여기는 만큼 동기부여가 확실하다.

최근 2년간 한국의 각급 연령별 대표팀은 일본을 만나 모두 좋은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이승우와 황희찬의 연속골로 2-1로

승리한 데 이어 올해 U-20 월드컵에서도 16강전에서 오세훈의 결승골로 1-0으로 이긴 바 있다. 이제 A대표팀이 마침표를 찍어줄 때다. 뉴스1

'신인왕' 임성재, PGA투어 2020년 주목해야할 선수 선정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2020년 주목해야할 선수 중 한 명으로 한국의 임성재를 꼽았다.

PGA 투어는 17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주목해야할 선수 30명을 발표했다. 임성재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저스틴 토마스(미국) 등 쟁쟁한 스타들과 함께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PGA 투어는 "임성재는 지난 시

즌 35개 대회에 출전해 톱10에 7번, 톱25에 16번 이름을 올리면서 신인왕을 차지했다"며 "그림에도 수차례 캐디를 교체한 것은 임성재가 얼마나 승리하고 싶어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임성재는 한국프로골프투어(KPGA)에서 우승도 차지했고 프레지던트컵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다.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에서는 준우승을 했고 조조 챔피언십에



서는 공동 3위에 올랐다"며 "임성재의 PGA 투어 첫 우승은 조만간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은, 세계랭킹 7위로 한계단 상승...고진영 21주 연속 1위

박성현 2위 · 김세영 6위

이정은(23·대방건설)가 세계랭킹 7위로 한계단 상승했다.

이정은은 17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랭킹포인트 5.69점을 기록, 지난주 8위에서 한계단 오른 7위에 자리했다. 이정은이 올라가면서 캐나다의 브

록 헨더슨은 8위로 내려 앉았다.

지난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신인왕 이정은은 한국 선수 중 세계랭킹이 4번째로 높다. 현재 순위를 유지한다면 2020 도쿄올림픽 출전도 가능해 보인다.

이정은과 헨더슨을 제외하면 세계랭킹 10위 안에서의 변동은 없었다. 고진영(24·하이트진로)은



21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박성현(26·솔레이)은 2위, 김세영(26·미래에셋)은 6위다.

'백지위임' FA 오지환 "운동·봉사활동·육아로 바빠"

FA 계약을 원 소속구단 LG 트윈스에 '백지위임'한 오지환(29)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오지환은 2019시즌을 마친 뒤 FA 자격을 얻었다. 수년 간 LG 부동의 주전 유격수로 활약해 대어급으로 꼽히지만 시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은 가운데 쉽게 계약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오지환은 최근 협상을 LG에 백지위임했다. FA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결정.

협상 과정에서는 오지환이 6년 계약을 원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는 설이 확산되면서 오지환을 향한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다. 결국 오지환은 "가족들과 동료, 팬들에게 미안하다"며 구단에 협상을 일임했다.

오지환이 꺼내든 '백지위임' 카드로 계약은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에서 열

리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실행위원회에 참석 중인 치명석 LG 단장은 "곧(오지환)이를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16일 저녁 뉴스1과 연락이 닿은 오지환은 "달라진 것은 없다. 주시는대로 받을 생각"이라며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머리쓰는 것도 싫었다. 주변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백지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단, 6년 계약 요구에 대해서는 "LG 프랜차이즈로 남고 싶다는 마음으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진심을 드러냈다.

최근 오지환의 일상은 개인 훈련, 봉사활동, 육아 등 크게 3가지다. 오전에는 훈련을 소화한 뒤 잠실중학교로 이동해 꿈나무들을 상대로 노하우를 전수한다. 일정을 마친 뒤에는 귀가해 아내와 함께 태어난 지 100일 된 아들을 돌본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 혜택을 받으면서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 오지환은 올 시즌에도 월요일마다 잠실중학교를 찾아 후배들을 만났고, 비시즌에도 평일에 어김없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고 있다.

오지환은 "운동, 봉사활동, 육아로 바빠 지내고 있다"며 "학생 선수들에게는 '궁금하게 있으면 물어봐라'고만 했는데 의외로 여러가지를 물어보더라. 수비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으니 뿌듯했다"고 일상을 소개했다.

화순군
HWASUN-GUN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